

7/26/20

설교 제목: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수와 하나님의 구속 사역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20 장 1-18 절

(창 20:1)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창 20:2)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창 20:3)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창 20:4)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창 20:5)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창 20:6)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창 20:7)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창 20:8) ○아비멜렉이 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 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창 20:9)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창 20:10)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창 20:11)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창 20:12)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 (창 20:13)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 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푼 은혜라 하였었노라
- (창 20:14)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 (창 20:15)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 (창 20:16)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천 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 (창 20:17)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 (창 20:18)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단으셨음이더라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진 후 20 여년간을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서 살다가 네게브 땅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4 년 전 애굽에서 저질렀던 것과 동일한 실수를 범합니다.

같은 실수를 두 번씩이나 반복해 저지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위기에서 구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24 년 전 그의 나이 75 세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인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자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당장 살 궁리로 나일 강으로 인해 물 걱정이 없었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혹여 그곳 사람들이 자신을 해하고 사라를 취할까 두려워하여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아내 사라를 애굽 바로 왕에게 빼앗기고 아브라함은 일생일대의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위기를 자신이 수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 사라를 도로 찾고 애굽 왕으로부터 많은 재물과 짐승과 종들까지 얻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후 24 년이란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의 나이 99 세가 되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그 나이에 20 여년을 살았던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을 떠나 네게브 땅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랄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지경 안에 있는 땅입니다.

이곳으로 이주해 온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랄 사람들이 아내 사라를 취하기 위해 자신을 해할까봐 두려워 염려했고 그래서 또 머리를 굴려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24 년전 이 거짓말로 인해 인생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던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었나 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거짓말로 인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기고 또 다시 인생의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내 사라를 찾고 지난 번 애굽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비멜렉으로부터 재물까지 얻어 나오게 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 20:1)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네게브는 사해와 지중해 사이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연유로 20 여년을 살던 헤브론을 떠나 이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

새롭고 좋은 목초지를 찾기위해 이주하였을 수도 있고 헤브론 마므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방인으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랄로 이주한 아브라함은 20년 전 애굽에 내려갔을 때 했던 거짓말을 나이 99세가 되어 또 반복합니다.

그 거짓말로 인해 20년전 애굽에서 겪었던 것과 똑같은 일을 다시 겪게 되었습니다.

(창 20:2)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신의 누이라고 한 말을 믿고 사라를 데려 간 것입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는 89세였고 아직 이삭은 태어나지 않았던 때입니다.

사라가 아무리 아름답다해도 나이 90을 바라보는데 왜 아비멜렉이 이렇게 나이 든 사라를 후처로 삼으려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힘있는 세력끼리 혼인 관계를 맺어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 견제하기도 하였으므로 아비멜렉도 이러한 정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라에게 접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짜고짜 네가 데려온 이 여자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창 20:3)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사라의 순결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급박한 조치였습니다.

아비멜렉을 비롯해 가나안 일대 이방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창 20:4)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창 20:5)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대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사라를 자기의 처소로 데려오기는 하였지만 아직 동침은 하지 않았으며 자신에게 아무 죄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자신이 사라를 취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들 사이가 이복 형제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비멜렉의 항변에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러기에 아비멜렉 너로 하여금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모종의 조치를 취했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 20:6)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창 20:7)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 보내라고 하시며 만일 돌려보내지 않을 경우 아비멜렉과 그에게 속한 자가 다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소개하시며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비멜렉이 아침 일찍 종들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다 말했습니다.

(창 20:8) 아비멜렉이 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 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인해 자신은 물론 자신에게 속한 자들이 다 죽게 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합니다.

(창 20:9)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창 20:10)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방인인 아비멜렉으로부터 실랄하게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함으로써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수모를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구차한 변명을 늘어 놓습니다.

(창 20:11)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창 20:12)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창 20:13)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 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푼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혹여 자신의 아내 사라로 말미암아 자신을 죽일까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 거짓말을 했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사라가 실제로 자신의 이복 누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사라가 이복 누이였을지라도 이미 자신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남편으로서 아비멜렉이 데려갈려고 했을 때라도 진실을 밝히고 못 데려가게 했어야 마땅했습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주어 사라와 함께 돌려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땅 중 좋은 곳을 골라 살라고 하였습니다.

은 천개도 주었습니다.

(창 20:14)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창 20:15)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창 20:16)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천 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다시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배려였으며 사람들 앞에서 사라가 더럽힘을 당하지 않았다는 선포였습니다.

사람의 방편과 수단으로 자신의 안위를 지키고자 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아내 사라에게 수치를 안겨주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여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창 20:17)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창 20:18)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달으셨음이더라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고도 동침할 수 없었던 것은 생식기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건드릴 수 없도록 긴급하게 조치를 취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수를 덮어 주시고 이 일을 간박하게 처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내를 찾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 일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을 선민으로 택하여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셨는데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게 되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무사히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고  
나아가서 당신의 구속 사역을 차질없이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참으로 알팍합니다.

그 알팍한 성품을 가지고 머리를 굴리며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 시시각각 변하며 삽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더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변치 않는 한 분이 계시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들의 불신과 범죄와 배신 가운데서도 더럽다고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고 당신이 계획한 인간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변치않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언약하신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